

2009
YESAN CULTURAL CENTER

禮山文化



예산문화원 사진동아리 예담 / 조형석 作



예산문화원
YESAN CULTURE CENTER

2009 제 42호
2009 YESAN CULTUR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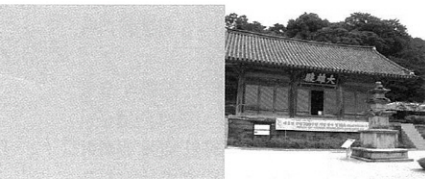
예산문화원 역대원장

- 1대 장영복 원장님 (1955. 10. 15 ~ 1957. 12. 31)
- 2대 김경환 원장님 (1958. 1. 1 ~ 1961. 12. 31)
- 3대 박병선 원장님 (1962. 1. 1 ~ 1963. 12. 31)
- 4대 장영복 원장님 (1964. 1. 1 ~ 1965. 5. 24)
- 5대 서창재 원장님 (1965. 5. 25 ~ 1978. 2. 28)
- 6대~10대 이항복 원장님 (1978. 3. 1 ~ 1995. 7. 16)
- 11대~12대 이지호 원장님 (1995. 7. 17 ~ 2004. 11. 11)
- 13대 이진자 원장님 (2004. 11. 12 ~ 2006. 6. 30)
- 14대 이웅면 원장님 (2006. 7. 1 ~ 2008. 11. 10)
- 15대 김시운 원장님 (2008. 11. 11 ~ 현재)

禮山文化

차례

- 02_ 예산문화원 역대원장
- 04_ 발간사 (예산문화원장)
- 05_ 예담회 한국화갤러리
작가_ 김화찬 목사 / 주경숙
- 06_ 예산문단
수필_ 김창배 시_ 한용수 / 강영미
- 08_ 향토문화 탐방
추사의 학문과 예술_ 최원수
예산 대흥임존성연구를 내며_ 성부제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를 보며_ 박세진
- 21_ 예산문화원 활동소식
- 22_ 예담 사진갤러리



- 24_ 스포츠와 생활건강
발레와 아이들의 신체발달_ 강수정
- 26_ 예산문화원 조직도 / 문화교실 안내
- 27_ 예산문화원 회비 및 기부금 납부자 명단

2009

NO.
42





발 간 사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乙丑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2010년 庚寅年을 맞이하는 세모의 길목에서 예산문화원 원보 제42

호 발간을 온 문화가족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군민의 건

승하심과 소망 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충청남도과 예산군정이 날로 번영하여 풍요로운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중심 가치는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볼때 문화는 산업과 서비스에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세계화·정보화가 가속화 될수록 문화 정책의 확립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가꾸면 가꿀수록 우리에게 미래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2010에는 예산문화원에서 문화인의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비전 있는 사업 활동을 더욱 개발하여 이룩하고자 합니다.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걸맞도록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를 바라는 시대적 요망에 부응해서 사업계획을 전략화 해서 그 전략을 예산군의 지역경제에도 일익이 되면서 전체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개발 시행함을 목표로 기초를 마련하여 예산문화원 내에 문화학교를 알차게 계획하여 예산군민을 위한 사회교육을 기관화 하기 위하여 입학의 희망하는 모든 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갖추하고자 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예산군민 모두가 함께 활용하는 문화의 전당이 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의 공간, 노인을 모시는 공간, 여성을 위한공간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여 문화 활동을 강화하는 바탕을 넓혀 나아가고자합니다.

사회교육시설에 있어서는 예산지방의 정서와 실정에 맞는 문화학교 과목으로 서예, 국악, 미술, 한학, 시조, 민속분야, 한국화, 농악, 풍수지리학 등의 교실을 보강하고 문화 활동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문화활동, 주부문화활동, 전승민속 문화활동, 지역축제문화활동, 지역축제문화활동, 지역행사개최문화활동, 전시 및 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아가고자합니다. 금번 원보를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신 충청남도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우리 예산문화원 가족과 가정에 더욱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예산문화원장 김 시 윤 박사

예산문화원 한국화 동아리 **예담회**



스나무 / 김희찬 묵사



고택 / 주경숙

예산수제국수

김 창 배

스토리문학 신인상등단.
현 삼교읍사무소 근무.
예산문협 회원

회갑연이나 결혼식에 식사대용으로 국수를 많이 대접한다.

이는 국수가 음식 가운데 길이가 길어 장수의 뜻과 결연이 이어지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밀이 귀했던 시절에는 상류층사람들만이 즐겨먹었다. 제사나 잔치 등의 특별한 날이나 국수를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면을 좋아한다. 면 중에서도 국수를 무척 좋아한다. 즐겨 먹는 것은 비빔국수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맛있게 먹기 때문이다. 배부르게 먹고나면 포만감도 느낀다. "예산수제국수"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 같다. 국수를 먹을 때 다른 사람보다 먹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국수를 많이 먹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속사정을 남들이 몰라주어 속상한 때가 조금은 있다.

집사람은 국수를 나처럼 좋아하지 않는다. 나와는 정반대이다. 국수를 삶으려면 귀찮고 라면에 비해 손이 많이 간다. 국수를 먹고 싶을 때마다 삶아 달라고 할 수 없어 내가 손수 냄비마다 물을 넣고는 국수를 삶는다. 눈대중 5배정도의 물을 냄비에 붓고는 끓이다가 국수를 넣으면 하얀 거품을 연신 풀어 낸다. 거품을 토해내면 찬물을 조금 넣으면 거품이 가라앉고 또다시 거품을 품으면 물을 넣는다. 서너 번 찬물을 넣으면 면발이 쫄깃해진다. 국수를 삶을 때 면이 차가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쪼그라져 잘 퍼지지도 않는다. 삶은 국수를 소쿠리 담아 물이 빠지면, 큰 그릇에 고추장, 기름, 얼무김치 등을 넣고는 비벼서 먹는다.

수제국수의 원료는 밀가루, 옥수수전분, 정제염이다. 이런 원료로 만든 수제국수는 태양열에 말려서 제품이 완성된다. 국수가 되기 위해 그동안 뜨거운 태양의 햇살을 받으며 잘도 단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수를 삶을 때마다 태양열보다 더 뜨거운 100℃이상의 열을 잘도 소화하며 연신 거품을 풀어 낸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 여름 날 태양이 지는 저녁 햇살아래 흰 구름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떠오른다. 그 아래에서는 면을 기계에 뽑자 마자, 국수면발이 시누대에 허리를 반듯하게 걸치고 누워있다.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선 모습은 정답게만 느껴진다. 그런 모습을 예산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국수의 참맛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바람, 햇살이 시간을 가지고 만든 합작품인 것 같다.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삼교농협 마트에서 1400g수제국수를 3,950원에 사왔다. "백월산 예산국수"였다. 포장지에는 홍성을 일산리로 되어있다. 원료는 밀가루, 옥수수 전분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산(미국, 호주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정제염 표시에는 외국산표기가 없어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동안 즐겨먹던 수제국수의 원료가 수입 산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기분은 좋지 않았다. 상표가 "예산"이 들어갔다는 사실과 원료를 수입 산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산읍에서 수제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6~7개나 된다. 예산수제국수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공장과 합의하에 이루어 졌거나 아니면 기술을 예산에서 배워서 그렇게 예산상호를 쓰겠지 라고 추측하고 싶다.

수제국수를 삶다보면 가끔 생각이 나는 것이 있다. 오가면에서 근무할 적에 직원 한명이 "제무가 많다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자 같이 근무하던 총무계장님이 "나도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국수를 삶아서 많이 먹었다."며 소비보다는 절약하면서 살아가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반려하면 사표를 내고, 사표를 내면 반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달 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산군청에다 사표수리를 전달하였다. 서무업무를 보면서 내손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그 직원은 일주일 지나서 사표수리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여러 번 접하게 되어 늘상 마음이 아프다.

10월15일 예산장날에 가서 강지로 돌돌 마른 예산수제국수를 사와서 오는 국수를 삶아서 먹어본 국수와 예산수제국수와 맛을 비교해 보아야겠다.

행운 목

울부짖기 싫었다
 날선 톱이 숲을 도막내고 지나갔을 때
 끝이라고 아픔에 떨면서 자책했다
 해체된 몸통이를 챙기려하지 않았다.

누가 알았을까 이리될지
 움트는 사랑을 키우게 되리란 걸
 가슴 안에 푸른 기운이 남았던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
 상처는 아물고 꿈은 작아졌어도
 그녀의 눈 웃음만 마시고도 행운목이라 불러진다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군가의 희망도 자랄 것이다
 준비된 수관이 있는 한 행운은 계속될 것이다
 잘려진 채로도 쓸 만한 나무
 여기 싱싱하다

한 용 수

한국현대시문학.
 문예운동 시부문 당선.
 현 예산예총 사무국장

사천원의 미학

천 원짜리 네 장으로 무얼 해야려 담을 수 있을까
 돈에는 푸른 빛 감돌아야 아이들 얼굴도 환해지는데
 커피숍 커피 한 잔도 짠 곳이라야 오천 원
 정육점 한우 꽃등심이 100g에 사천오백 원
 시장 포도가 2근에 오천 원
 동네 바지락갈국수는 1인분에 육천 원
 다래성 자장면이 1그릇에 삼천오백원인데
 먹고 돌아서면 금세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들
 그럼에도, 백번이고 그럼에도
 공장 뜰 화원에서 사천 원 주고 이사 들인 소국 화분
 해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늘 처음같이
 꽃망울 터트리며 자줏빛으로 웃어준다
 그럴 때는 소국이 사천 원 보다 싱싱해진다
 얼기설기 얹힌 잔뿌리 흙 한줌에 시린 바람 이겨내고
 검게 맥 농을 염천에서도 오직 한 생각으로 그렇게 걸어왔을 참이다
 저 반듯하게 접힌 천 원 짜리 네 장의 미학
 필랑게비 같은 마음들에게도 혈령한 생의 의미를 일깨운다

강 명 미

문예사조 신인상 등단
 시집 연니 조금만 기다려요.
 무시래기의 꿈.
 한국문인협회 회원.
 예산문협회원



秋史의 學問과 藝術

崔完秀(潤松美術館 研究室長)

- 1942년 중반 예산 출생.
- 1965. 2, 서울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65. 4~1966. 3, 국립박물관 근무
- 1966. 4~현재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 주요 저서 : 《佛像研究》, 《謙齋鄭致真景山水畫》, 《그림과 글씨》, 《秋史集》, 《金秋史研究序》, 《명찰순례 1, 2, 3》, 《진경시대》(공저), 《조선왕조 종의열전》, 《경쟁을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등이 있다.

序

우리 역사상에 학예(學藝)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만큼 그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는 경우도 드물다. 일반 사람들은 그의 독특한 서체로써 이름을 기억하고, 전문가들은 그의 심오한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끝없는 외경을 보내게 되며, 상가에서는 목적의 고가에 인기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추사에 대한 연구가 학문과 예술의 각각 분야별로 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추사는 단순한 예술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사조의 전환기를 산 신지식의 기수로서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여 노쇠한 조선왕조의 구문화 체계로부터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케 한 선각자였음이 밝혀졌다. 그의 학문과 예술은 연원이 당시의 연경학계(燕京學界)에 있었으니 소위 북학파(北學派)의 거벽으로 청조(淸朝)의 고증학풍(考證學風)을 도입 저작, 이 땅에 신문화로 정착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청조고증학의 골수인 경학(經學)과 보조인 금석학(金石學), 문자학(文字學), 사학(史學), 지리학(地理學), 천문학(天文學) 등 광범위한 영역에 두루 미쳤었고, 전통적인 조선사대부로서는 금기로 여기던 불교학(佛敎學)에까지 박통했으며 서론(書論)과 화론(畫論)은 물론 시·서·화·금석의 감상에조차 정심한 안목을 두루 갖추었다.

그의 예술은 이와 같이 광활하고 철저한 학문적 바탕 위에서 천부의 재질이 천연한 결실을 맺은 것이었으니, 시·서·화·전각 등 어느 분야에서나 뛰어난 것이 없었다. 그러나 특히 서도(書道)에서는 추사체(秋史體)라는 독자 일문(一門)을 열어 서예사상 지고의 경지를 이룩했다.

1. 學問의 世界

추사(秋史)는 정조 10년(1786) 6월 3일에 충청도 예산(禮山) 향저(鄕邸)에서 탄생한다. 이 시기는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 이념이 고유색 짙은 진경문화(眞景文化)를 난만하게 꽃피우는 제 구실을 다하고 저녁노을처럼 남은 빛을 볼때우던 때였다. 그래서 일부 선각자들은 새아침을 준비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니 북학(北學) 즉 북쪽의 학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북학은 곧 청조(淸朝)를 풍미하던 고증학풍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려는 운동은 대체로 영조 40년(1764)경부터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6)과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3) 등 사행을 따라 연경(燕京)을 다녀온 세가 자제들에 의해서 주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학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연암의 제자로서 정조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1741~1793)·영재(冷齋) 유득공(柳得恭, 1748~?)·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강산(薑山) 이서구(李書九, 1754~1805)·금릉(金陵) 남공철(南公徹, 1760~1840)과 같은 사람들에 이르러서인데, 이들은 주로 정조 원년(1777)에 기능이 강화되는 왕립 학술 기관인 규장각(奎章閣)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추사 김정희 영정 (秋史 金正喜 影幀)



추사고택 사당채



추사고택 백송



추사고택 전경

그중 박제가는 일찍이 『북학의(北學議)』 1책을 저술하여 북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학에 가장 열중했는데, 추사는 바로 이 열혈 북학파인 박제가의 눈에 띄어 어린 나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학문 방향은 자연히 애초부터 새로운 청초고종학 쪽으로 기울어져서 껌질만 남은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은 안중에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청나라에 가서 본격적인 고종학에 접하고자 했는데 마침 생부 김노경이 순조 9년(1809)에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의 부사(副使)로 연경에 가게 되자, 약관 24세의 청년인 추사는 이에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추사가 스승인 박제가로부터 이미 청나라 학계에 관하여 자세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주 연경을 내왕한 사우(師友)들을 통해서 그의 명성도 연경학자들 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청나라의 청년 학자인 조강(曹江)이 추사가 사신에 수행해 왔다는 말을 듣고 이런 말로 반기고 있다.

“동쪽나라에 김정희 선생이란 분이 있으니 재주, 號의 잘못)는 추사이다. 나이 이제 24세인데 개연히 사방으로 지기(知己)를 찾아다닐 뜻이 있어서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개연히 한 생각 일으키니 사해(四海)에 지기를 맺고자. 만약에 맘에 드는 사람 찾지만 하면 위해서 한 번 죽기도 하련만. 하늘 끝 저쪽엔 명사가 많으니 부러움을 홀로 주체 못하네'라고 했다 하니, 그 취상(趣向)을 가히 알 수 있다.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글을 꾸며 짓지 못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도 잘 짓고 술도 잘 마신다고 한다. 지극히 중국을 그리워하여 동쪽 나라에는 사귄만한 선비가 없다고 스스로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바야흐로 사신을 따라 왔으니 장차 천하의 명사들과 사귀어 옛사람들이 정의(軀體)를 위해 죽던 의리를 본받으려 한다고 한다.”

이로써 그는 비록 몇 달에 지나지 않는 짧은 동안(1809년 10월에 서울을 출발해 다음해 3월에 서울로 돌아온다.) 연경에 체류하지만 연경학계에 많은 저명인사들과 폭 넓은 교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1764~1849) 같은 거유에게 면학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연경학계는 고종학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 점차 난숙해가던 형편이어서 종래 경학의 보조학문으로(고종학의 기본은 유교 경전의 연구인 경학에 있었다) 존재했던 금석학(金石學)·사학(史學)·문자학(文字學)·음운학(音韻學)·천산학(天算學)·지리학(地理學) 등의 학문이 각기 독립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석학은 문자학과 서도사(書道史)의 연구와 더불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대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심인물이 옹방강과 원원이었다. 따라서 추사는 고종학의 끝수인 경학은 물론 모든 학문분야에서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특히 이제 새로 크게 문호를 연 금석학에 있어서는 옹·완으로부터 거의 충격적인 감화를 받고 돌아온다.

그래서 귀국 후에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고 금석자료의 수집(搜探)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산순수비(北漢山巡狩碑)를 발견해 내고 『예당금석고안록(禮堂金石過眼錄)』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저술을 남기게 되었으며, 황초령순수비(黃草嶺巡狩碑)·북한산순수비·무장사비(蔞藏寺碑) 등의 보호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업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금석학과 서도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우리 금석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후학을 지도하여 이른바 조선금석학파(朝鮮金石學派)를 성립시켰으니 그 대표적인 학자들을 꼽으면 다음과 같다. 신유(申緯, 1769~1845), 조인영(趙寅永, 1782~1852), 권문인(權敦仁, 1783~1859), 김유근(金道根, 1785~1840), 이조묵(李祖默, 1792~1840), 윤정헌(尹定鎭, 1793~1874), 신관호(申觀浩, 樸, 1811~1888), 조연호(趙冕鎬, 1804~1887), 이상직(李尙迪, 1804~1865), 전기(田琦, 1825~1854), 오경석(吳慶錫, 1831~1879) 등이 그들이다.

우리는 이들 이름에서 추사의 동년배들은 거의 세가의 자제로 대관(大官)을 지낸 사람들이었고, 뒤로 내려오면 점차 조선



세한도 (歲寒圖, 국보 제180호)

말기의 새 세력으로 등장하는 역관(譯官) 계통의 중인(中人)계층이 추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거의 개화파의 선구가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추사의 경학은 옹방강이 서찰을 통해서 그를 의발(衣鉢)제자로 인간한 것과 같이, 옹방강의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을 근본적으로 따르고 있는데 이는 한대 훈고학과 송대 성리학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충론으로 한학(漢學)을 추송(推崇)하고 송명(宋明) 이학(理學)을 배격하던 청대 정통 고증학이 극도로 발전하여 유폐(流弊)를 낳게 된 결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신설(新說)이었다.

그런데 비록 조선은 그 발전단계에 있어서 한학시대의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송의 성리학에만 오래 몰두해 있던 끝이 아니라 고증학을 이해하는 데 이 절충론이 한학 위주의 정통 경학 쪽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사도 옹방강의 학설에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청조 경학의 정통을 이어 경제치용(經世致用)을 주장한 안원의 학설과 방법론도 추사의 경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나, 31세 때 그의 경학관을 요약하여 천명했다고 할 수 있는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에 이 양대 거구의 영향이 골고루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추사는 옹방강이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겼던 대진(戴震, 1723-1777)이나 능정감(凌廷堪, 1757-1809) 등의 학설에도 자못 심취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의 논고를 초록(抄錄)하여 참고했거나 전편 옹호한 사실을 우리는 그의 문집에서 발견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추사는 고염무(顧炎武, 1613-1682) · 모기령(毛奇齡, 1623-1716) · 주이존(朱彝尊, 1629-1709) · 호위(胡渭, 1633-1714) · 매문정(梅文鼎, 1633-1721) · 왕사진(王士禛, 1634-1711) · 염악거(閻若璩, 1636-1704) · 전조망(全祖望, 1705-1755) · 왕명성(王鳴盛, 1722-1798) · 조익(趙翼, 1727-1814) · 전대흔(錢大昕, 1728-1804) · 요내(姚鼐, 1732-1815) · 단옥재(段玉裁, 1735-1815) · 최술(崔述, 1740-1816) · 왕염손(王念孫, 1744-1832) · 유태공(劉台拱, 1751-1805) · 장혜언(張惠言, 1761-1802) · 왕인지(王引之, 1766-1834) 등 청대 학술의 거벽들에 관해서도 그들의 학설을 박람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를 소화하고 있었던 듯하니 그의 장서목록이나 교유간의 왕복서간 및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학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외에 음운학과 천문학 · 사학 · 지리학 등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문집에 수록된 한두 편씩의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히 서역(西域)의 지리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이는 연경에서 천교를 맺은 서역 지리 전문가인 서송(徐松)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겠지만 당시 우리 근해에 자주 출몰하기 시작하는 이상선(異槎翁)의 원원을 탐지하려는 학구적인 욕망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 이미 추사는 위원(魏源, 1793-1856)의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읽고 있었으므로 당시 중국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리에 대한 식견에는 뒤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다음에 추사 학문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교학이다. 불교는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에 사대부들에게 금기의 학문이었다. 그러나 거유들의 경우에는 비록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있었으며, 왕실과 세족(世族)들은 능묘(陵墓)의 주변에 조포사(造泡寺)란 명목으로 원찰(願刹)을 가지고 있었다.

추사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조인 영의정 흥경과 증조인 월성위 부부 등의 묘소가 있는 예산(禮山) 용산(龍山)의 향지(鄉地) 경내에 화암사(華嚴寺)라는 원찰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는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유하며 불교 신앙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위에 박제가와 같이 성리학의 교루한 형식적 테두리를 벗어난 스승에게 배우게 됨으로부터 불교에 대한 금기가 무의미한 것을 통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학문적인 지식욕에 의해서 불전(佛典)을 섭렵하게 되고 청나라 학계의 자유로



영영백운도 (英英白雲圖)



지란병분 (芝蘭並盆)

은 학문연구 분위기를 제하고 나서는 거리낌 없이 불교 연구에 심취했던 듯하다.

한편 18세기 중반기로부터 불교계에서도 성리학의 쇠퇴와 북학파의 활동 등 시대사조의 변천에 발 맞춰 오랜 침체를 깨뜨리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화엄학(華嚴學)이 크게 일어나 선(禪) 일반도의 조선적 정체성에 새 바람을 일으킨다. 이 화엄학은 본디 부휴(浮休, 1543~1615)계와 서산(西山, 1520~1604) 문종의 편양(鞭養) 안기(彦機, 1581~1644) 및 소요(逍遙) 태능(太能, 1562~1649)계의 몇몇 학승(學僧)들에 의해서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편양의 법소(法系)인 환성(喚聲) 지안(志安, 1664~1729)에 이르러서 크게 그 중풍을 드날리기 시작하니, 이후에 특히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대덕들이 배출되어 불교 사조를 일신한다.

이런 기운은 추사가 나는 시기를 전후하여 한껏 고조되니, 대화엄종장(大華嚴宗匠)으로 꼽히는 설파(雪坡) 상연(尙彦, 1707~1791)·연담(連潭) 유일(有一, 1720~1799)·영파(影波) 성규(聖奎, 1728~1812)·묵암(默庵) 최능(最訥, 1722~1795)·인악(仁嶽) 의소(義沼, 1746~1796)·해봉(海鵬) 전경(展鏡, ?~1826)·백파(白坡) 금선(巨峯, 1767~1852)·초의(草衣) 의순(意順, 1786~1866) 등이 쏟아져 나온다. 추사는 이들 거장들이나 그 법자(法資)들과 모두 친교를 맺어 두루 교류한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특히 백파와 초의가 추사의 불교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백파는 추사보다 19세 연장으로 백양산(白羊山) 운문암(雲門庵)과 영구산(靈龜山) 구암사(龜巖寺)에서 선강법회(禪講法會)를 열고 선종(禪宗)·강풍(講風)·율풍(律風)을 아울러 드날리던 대종사(大宗師)였다. 그리고 초의는 추사와 동갑으로 일찍이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강진(康津)에 적거(謫居)해 있을 때 그에게서 유교경전을 비롯한 제반 학문을 배워 내외전(内外典)은 물론 시·서·화 및 다도(茶道)에까지 박통(博通)했던 학예승(學藝僧)이었다.

일찍이 그는 서울 주변을 편력할 때 수락산(水落山) 학림암(鶴林庵)에서 30세 동갑인 추사와 만나서 서로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다. 그 후 추사가 말년에 제주도로 유배되자 해남(海南) 대흥사(大興寺)에 있으면서 내왕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직접 배소(配所)를 찾아가거나 혹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선리(禪理)와 문예(文藝) 및 다도로 더욱 우정을 두터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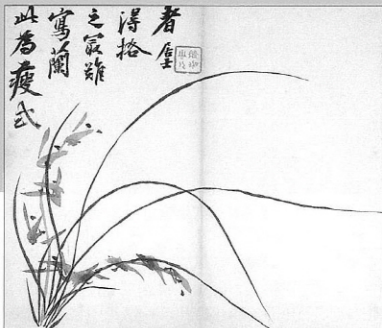
그래서 추사는 배소에서 초의를 통해 70년 수도를 자부하는 백파 노장(老長)과 선리를 왕복토론하게 된다. 이는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노대덕(老大德)과 일세 통유(通儒)로 추앙받던 대학자와의 논쟁으로, 서로 일보도 양보하지 않는 치열한 것이었는데, 이 속에서 추사의 불교에 대한 배합한 지식과 고증학자로서의 안목이 여실히 드러난다.

즉 추사는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능엄경(楞嚴經)」, 「금강경(金剛經)」, 「원각경(圓覺經)」 등등 최고수준의 대승경전은 물론 각종 논소(論疏) 및 행장(書狀)·어록(語錄) 등을 널리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전기(傳記)·승사(僧史) 류도 빠짐없이 읽고 고증학적인 안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한역경전(漢譯經典)의 불란전성을 역경(譯經)의 과정에서부터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온 것은 과연 조선 고증학계의 태두(泰斗)로서 손색이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추사는 당대의 선승(禪僧) 강백(講伯)들로부터 선지식(禪知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듯하니, 그 문집에 보이는 많은 승려들과의 왕복 서간 및 영정(影繪)의 제발(題跋)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사의 학문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 박통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제일통유(海東第一通儒)의 미칭(美稱)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도 자부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학문은 당시의 동년배로부터 후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쳐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풍을 일신시키는 감이 있는데, 특히 자신이 후학 가운데 출신의 최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을 초월하여 중언이계승 사람들을 많이 제정(濟濟)함으로써 학통을 이들에게 전하는 느낌이 강한 것은 분명히 새 시대의 전개를 모색한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사소요도 (高士逍遙圖)



난맹청(蘭盟淸)중에서 수식득격(瘦式得格)

2. 藝術의 境地

추사가 7세시에 입춘첩(立春帖)을 써서 대문에 붙였더니 노재상인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지나다 보고, 대대로 서로 좋지 않게 지내는 집안인 것을 알고도 특별히 찾아 들어가서 추사의 부친인 김노경에게 대문의 글씨를 쓴 사람을 묻고, “이 아이가 반드시 명필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터인데 그러면 팔자가 사나울 터이니 붓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울린다면 반드시 귀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 과연 추사는 글씨로 세상에 크게 이름을 드날렸으며 그의 노년은 매우 비참했다. 이 얘기는 고종 때 판서를 지냈으며 추사가 말년에 매우 귀여워해 직접 지도했던 재종손(再從孫) 태제(台灣)의 말로 전해진다.

이 얘기는 비록 정수론적(定數論的)인 신비한 색채가 농후하여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으나 적어도 추사가 학자로 보다는 서예가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의 예술적 재능이 천품으로 타고났었던 사실을 전해 주는 자료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당시 북학파들은 연경학계의 영향으로 시·서·화에 대한 교양을 필수 덕목으로 여기어 이의 수련에 골몰했으니 특히 박제가와 같은 사람은 청나라 일류의 감식안이며 시·서·화에 능했던 기운(紀昀, 1724~1805)·옹방강·철보(鐵保, ?~1824)·이병수(伊秉綏, 1754~1815) 등이나 일급 화가에 속하는 나방(羅聘, 1733~1799)·장문도(張問陶, 1760~1814)·장도악 등과 같이 사귀어 안목을 높이었으며, 스스로도 시·서·화의 각 분야에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의 천재적인 예술성은 스승 박제가에 의해서 일찍부터 개발될 수 있었을 터이니 그의 재명(才名)이 20세 전후에 국내 외에 떨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듯하다.

그러나 추사 예술이 본래에도 오르는 것은 역시 그가 연경에 가서 제명류(諸名流)들과 교유하여 배우고 많은 진적을 감상함으로써 안목을 일신한 다음부터이었다. 그는 우선 옹방강과 완원을 찾아가서 금석문의 감식법과 서도사 및 서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을 받고 서예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게 되었으니 옹방강의 석묵서루(石墨書樓)에서의 강론이나, 완원의 태화생비자관(泰和雙碑字館)에서의 다화(茶話)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추사는 이때의 사정을 ‘박해백이 글씨를 묻는 것에 답한(答朴憲百問書)’에서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밝혀 말하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는데 소몰네 살에 연경에 가서 여러 이름난 큰 선비들을 뵈고 그 서론(緒論)을 들으니 ‘발동법(撥鎗法)이 입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의미가 되며 손가락 쓰는 법, 붓 쓰는 법, 먹 쓰는 법으로부터 줄을 나누고 자리를 잡는 것 및 과(戈)나 파(波) 등의 점과 획 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쪽나라 사람들이 익히던 바와는 크게 다르고 한위(漢魏) 이래 금석 문자가 수천 종이 되어 중요(鑰要)나 식정(竊靖)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반드시 북비(北碑)를 많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비로소 그 처음부터 변천되어 온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추사는 당시 연경학계에서 금석·서도 및 감식의 제일인자로 손꼽히던 스승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 배우면서 점차 역대의 금석 탁본과 각종 법첩(法帖)을 힘써 수집해 연구함으로써 옹방강 서체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 조송설(趙松雪),

소동파(蘇東坡), 안진경(顔眞卿) 등의 제체(諸體)를 익힐 수 있었으며, 다시 더 소급해 한위시대의 여러 예서체(隸書體)에 서도의 근본이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본받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래서 한예(漢隸)의 장점을 모아 스스로 한 길을 터득해 냈으니 이것이 바로 졸박청고(拙樸淸高)한 추사체(秋史體)이다. 이는 홍중예(萬壽書)를 담고 팔독 아래 삼백구비(三百九碑, 漢隸字原에 수록된 漢碑의 總數)가 들어 있지 않다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그의 말과 같이, 타고난 천품으로 무한한 단련을 거쳐서 이룩한 고도의 이념미의 참안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법칙에 구애되지 않는 법칙이 있었다.

그러나 이 초탈한 법칙은 역시 가장 일반적인 정통 서법을 충실히 익힌 다음에 그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니, 그의 문집에 보이는 많은 글들 속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자상한 서법의 지도와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서가(書家)에 대한 준열한 비판들이 이를 말해준다.

한편 시도(詩道)에 대해서도 추사는 당시 고증학과 특히 웅방강파에서 그랬듯이 철저한 정도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전재(錢載)·옹방강·정사전(蔣士銓)으로부터 왕사진(王士禛)·주이존(朱彝尊)·사신행(查慎行, 1650~1727)을 거쳐 원호문(元好問, 1190~1257)·우집(虞集, 1272~1348)에 이르고, 다시 소식(蘇軾, 1036~1101)과 황정견(黃庭堅, 1045~1105)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두보(杜甫, 712~770)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시도의 정통으로 삼고 이들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소식으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시·서·화 일치의 문인 취미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림에서도 서권(書卷)과 문자(文字)를 주창하여 기법보다는 심의(心意)를 존중하는 문인화풍이 있었는데, 웅방강 학파에서 특히 이와 같은 문인화풍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 역시 이러한 문인화풍에 매우 철저했으니 마치 예서(隸書)를 쓰듯이 필묵(筆墨)의 아름다움을 주로 하여 고담(枯淡)하고 간결(簡潔)한 필선(筆線)으로 심의를 표출하는 문기 있는 그림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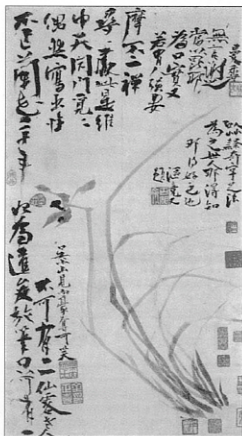
특히 그는 난(蘭)을 잘 칠는데, 항상 난치는 법을 예서 쓰는 법에 비겨 말하고, 문자항이나 서권기가 있는 연후야 그것을 할 수 있으며 화법을 따라 배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 상우(尙佑)에게 조윤형(曹允亨, 1725~1799)이나 유한지(俞漢芝, 1760~1834)가 예서 쓰는 법은 터득했지만 문자기가 부족하여 글씨가 안 되듯이, 조희룡(趙熙龍)도 문자가 없이 화법만 따라 배우니 난초가 처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

즉 그의 서화관(書畫觀)은 가슴속에 청고고아(淸高高雅)한 뜻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문자향과 서권기에 무르녹아 손끝에 피어나야 한다는 지고한 이념미의 구현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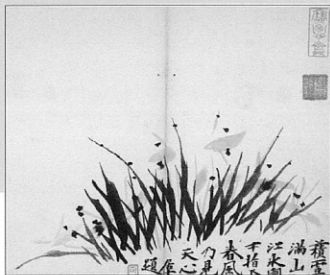
따라서 그의 감식안도 이와 같은 고답적(高蹈的)인 문인 취미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이전 작품으로 다만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의 서화만을 인정했고, 후진의 작품으로는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의 난초와 소치(小癡) 허유(許維, 1809~1892)의 산수나 신관호(申觀浩, 1810~1888)의 예서 정도를 인정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송(宋) 이후에는 다만 소식·황정견·미불(米芾, 1051~1107)·조맹부(趙孟頫, 1254~1322)·심주(沈周, 1427~1509)·문징명(文徵明, 1470~1559)·동기창(董其昌, 1555~1630) 등으로 이어지는 정통 문사들의 글씨 이거나 원 사대가 이후의 동기창·왕면(王冕, 1325~1407)·왕시민(王時敏, 1592~1680)·왕원기(王原祁, 1642~1715)·왕휘(王翬, 1632~1726)·원소(陳元素)·백정(白丁)·석도(石濤)·고기배(高其佩, ?~1734)·정선(鄭善, 1691~1762)·주윤환(朱倫瀚)·나병(羅聘, 1733~1799)·장도원(張道源) 등등의 문인 화가를 꼽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식안은 매우 폭넓은 것이었으니 현재 문집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서도에서는 선진석고문(先秦石鼓文)으로부터 진각(秦刻)·한예(漢隸)·위기(魏記)·당담(唐搨)·송첩(宋帖)·명청서(明清書)에 이르기까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그림에서는 청나라 때 작품은 그만두고 명 이전 것만으로도 정사초(鄭思肖)·조맹견(趙孟堅)·조맹부(趙孟頫, 1254~1322)·황공망(黃



불이선난도 (不二禪蘭圖) 일영 부작란도 (不作蘭圖)



남명첩(南明帖) 중에서 적설만산(積雪滿山)

公望, 1269~1354) · 오진(吳鎮, 1280~1354) · 예찬(倪瓚, 1301~1374) · 왕몽(王蒙, 1309~1385) · 심주 · 동기창 · 문징명 · 이유방(李流芳, 1575~1629) · 유각(劉珪) 등의 작품을 논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그가 연경에 갔을 때 잠시 감상한 것도 없지 않겠으나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가 구입 수장(收藏)했던 것도 적지 않았던 듯하니 그가 옹방강 문인인 설지선(葉志諒, 1779~1862) 등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진 것만도 수백 점에 달하는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그 예로 현재 알려진 설씨

(葉氏)의 서간에 부기(附記)된 물목(物目) 중 화적(畵蹟)에 관한 것만 대강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오매촌선생(吳梅村先生) 산수(山水), 왕봉심선생(王蓬心先生) 산수, 청정암학사(淸晴巖學士) 화훼(花卉), 고차원(高且園) 지화(指畵), 원인(元人) 화취산수직방합금(花卉山水直屏合錦), 왕문단(汪文端) 심석전(沈石田) 자화합금(字畵合錦), 동문각(董文恪) 추림만조직방(秋林晩照直屏), 문대조(文待詔) 난죽횡폭(蘭竹橫幅), 전문민(錢文敏) 화훼횡폭, 나양방(羅兩峯) 화일책(畵一冊), 석사(席史) 화책, 동향광(董香光) 목산(牧山) 서화합금일축(書畵合錦一軸), 장송(張宋) 서화병일장(書畵屏一張), 우공보(尤貢甫) 하화일장(荷花一張), 명인(明人) 약양루도(岳陽樓圖).

여기서 우리는 추사의 감식안이 폭넓고 정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당시 예원(藝苑)에서 절대 승복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추사의 이와 같이 차원 높은 청초 문인풍의 감식안은 종래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길러져 왔던 조선 고유의 동국진체나 진경풍속화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으니, 원교(員橋) 이광사(李匡師)의 서법과 서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논리 정연한 그의 신서화론(新畵書論)과 졸박청고(拙樸淸高)한 서화법(書畵法)은 왕조 후기의 예원을 풍미하여, 당시 이후의 서화가로 추사를 흉내 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유행을 보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 고유의 동국진체나 진경풍속화풍은 일조에 완사리를 맞고 시들어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차원 높은 문인풍의 이념미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없이 누구나 표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이미 추사 자신이 누구도 이야기한 바이다. 그런데 당시의 고종학은 아직 그의 수준을 뒤따를 만큼 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따라 배운 서화가의 대부분은 내용 없는 형사(形畵)에 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구 문명의 소용돌이가 밀려들게 되자 조선 말기의 서화계는 일시에 침체되어 내용도 개성도 없는 중국풍의 모방에 급급하다가 서구 감각의 새로운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되고 말았다.

그의 예술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큰 부분은 전각(篆刻)이다. 전각이 단순한 인신(印信)의 의미를 뛰어넘어 예술의 한 분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명나라 중기부터이니, 문징명(文徵明)의 아들인 문팽(文彭, 1498~1573)과 그 제자 하진(何震)에 의해서이다. 이들의 문하에서 다시 흡삼가(歙三家)니 서량팔가(西泠八家)로 불리어지는 전각가들이 줄을 이어 나오게 되었으나 청대의 비파서도(辟派書道)가 낳은 등석여(鄧石如, 1743~1805)에 이르러서 크게 면목을 일신한다.

당시는 한인(漢印)의 각풍(刻風)을 본받아서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각풍을 일으켰는데 추사 당시에는 이 등씨풍이 연경 전각계를 풍미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사의 생부 김도경이 2차로 사신을 갔을 때 이 등완백(鄧完白)의 아들인 등전밀(鄧傳密)과 친교를 맺어 전밀이 그 부친 완백의 비문을 노경에게 부탁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추사는 등완백의 전각에 친밀하게 접할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송량(吳嵩梁)이나 완상생(阮常生) 등과 같은 학자들로부터 자신의 인각(印刻)을 새겨 받음으로써 당시 청나라 전각풍에 두루 통할 수가 있었고 또한 고인(古印)의 인보(印譜)를 구득하여 직접 진한(秦漢) 고인의 실영(實影)을 본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의 전각 수준은 청나라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었다.

이에 추사는 그의 별호(別號) 만금이나 많은 전각을 하고 이를 서화의 낙관(落款)에 쓰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등씨풍 내지 서량팔가풍이 강하나 점차 추사체가 확립되어 나감에 따라 독특한 자각풍(自刻風) 즉 추사각풍을 이룩하여 특유의 활박정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완당선생경주김공휘청회묘

수(拙樸淸瘦)한 특징을 남김없이 드러낸다. 이로써 추사는 시·서·화에 삼절일 뿐만 아니라 서·화·전각 삼절로도 손색이 없게 되니 가위 조선 후기가 낳은 천재적인 예술가라 할 수밖에 없다.

小 結

추사는 후기 조선 왕조가 낳은 대학자이며 대예술가이다. 즉 그는 후기 조선왕조의 치국이념(治國理念)인 조선 성리학이 말미에 현상을 노정하여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나서, 신문화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난숙하게 발달한 고증학을 받아들여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새 시대의 전개를 모색한 선각자였다.

그래서 그의 학문 내용은 당시의 청초 고증학이 그랬듯이 경학(經學)·금석학(金石學)·문자학(文字學)·사학(史學)·지리학(地理學)·천산학(天算學)·음운학(音韻學) 등 여러 분야에 두루 통달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특히 금석학의 연구에 정심하여 서도사 연구와 더불어 일가를 이루함으로써 조선 금석학파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경학에 있어서는 옹방강의 「한송불분론(漢宋不分論)」에 근본적으로 공감하여 성리학과 훈고학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절충론을 부르짖음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극단적인 획일주의에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이외에 불교학에도 정통하여 당시 새로운 면목을 보이던 화엄학파(華嚴學派)들과의 빈번한 접촉과 논쟁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신사상으로서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의 해박한 불교 지식은 백파(白坡)와 같은 당세의 선지식(善知識)도 무색할 만했다.

그래서 추사의 학문은 이후 학계에 상당히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조선 말기에 새 세력으로 등장하는 중인계층(中人階層)이 그의 학통을 이어 장차 개화세력(開化勢力)으로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짙다.

그러나 추사는 학자이기 이전에 타고난 예술가였다. 그런데 그가 접했던 청초 고증학은 난숙할 대로 난숙해진 결과로 문인 취미가 한껏 고조되어 시·서·화에 대한 감식과 수련을 문사의 필수 교양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추사의 예술적 천품은 여기서 크게 빛을 발하여 시·서·화는 물론 전각에까지도 독자적인 일문을 열게 되었으니 소위 추사체의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시·서·화 일치 사상에 입각한 고답적인 이념미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초 고증학을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래서 종래 조선 성리학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보인 조선 고유의 동국진체나 진경풍속화풍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바로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에 대한 그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의 예술은 그 전파성(傳播性)이 학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진폭(振幅)으로 조선 예원(藝苑)을 석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학문이었던 청초 고증학이 진원지인 중국에서부터 미구에 서구 문명에 밀려나는 세계 정세의 대변현이 되다시피 있었으니, 우리의 경우도 그의 신사상이 이 땅에 토착화할 겨를이 없이 서구 문명에 휩쓸려나가기 되었다.

따라서 그를 추종하여 앞서 가던 조선의 예원은 뒷받침해 주어야 할 사상적 근거를 잃고 다만 외형적인 중국풍의 표현 형식에만 매달렸으니, 오히려 추사는 독자적으로 자라온 조선 고유의 예술만 단절시키고 조선 예술을 내용 없는 중국풍의 이류로 전락시켜, 밀려드는 일본풍에 맥없이 휘말려들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추사 자신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을 것이니,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그의 예상을 앞질러 간 데서 빚어진 역현상(逆現象)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적 제 90호 대흥임존성

大興任存城 禮山



예산대흥임존성 연구를 내며... 성 부 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전쟁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백제 부흥군 전투에 있어, 최초의 봉화를 올렸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부흥운동 대단원의 종막을 고한 사적 90호 예산(대흥)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사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부흥운동의 꽃이라고 하는 흑치상지의 기록을 보면 그는 백제 풍달군장을 겸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지리지에 정작 풍달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비 백제시대의 행정체계는 방, 군, 성 체제였다. 백제에는 5방성이 있었으며 부흥운동의 중심지 임존성은 서방성 지역이었다. 현대 백제의 행정조직에 맞지 않는 임존성은 다른 군과 같이 '오산과 고랑부리' 2개의 영현을 거느리고 있다. 백제 37군중 유일하게 삼이면서 영현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백제의 통치조직에 어긋나는 행정체제다. 하지만 이 역설적인 문제를 해결할 역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백제의 역사가 멸실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임존성의 명확한 축성시기를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다.



임존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성격규명은 고구려의 남침을 막기 위하여 축성된 백제성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표조사에서 백제시대유물의 발견이 없었고, 일반 백제성과는 달리 고지대에 축성되어 있어 적의 침투로 방어를 위한 산성으로서 보다는 피난지성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백제 왕성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방어성이 아닌 피난지 성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로 보면 이제까지 역사기록으로 믿고 있던 백제 임존성이라는 일반적 상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임존성의 축성시기가 밝혀져야



예담자수지 수문에서 바라본 임존성 전경

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존성전투가 기록된 사료를 조사해 보면 '임존 대책'이나 '임존 소책'이라는 기록만 보이지, 정작 임존성이라는 기록은 부흥운동 6개월 후의 기록에서 정식 등장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임존성은 『삼국사기』의 '임성군 본 백제 임존성'이 아니라 부흥운동기간에 축성된 성으로서, 백제 때 임존성 지역은 풍달군이 본래 치소명이었고 영현은 오산(예산), 고량부리(청양)였다. 풍달군 치소는 흥성군 장곡면 학성산성으로 추정된다. 군사 중심성 서방성은 흥성군 금마면 태외산성이다. 백제 부흥운동을 평정한 당은 서방성에 자심주를 설치하고 백제 서방성 관할 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런데 당은 새로 생긴 임존성을 자심현으로 개명하여 백제시대의 풍달군 지역의 치소로 삼았다. 이때에 처음으로 풍달군 지역의 치소가 임존성으로 바뀐 것이다. 이때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서 백제시대 군현의 경계변동이 있었다.

그런데 나당 전쟁의 결과 당군이 백제 고토에서 쫓겨 가면서 백제고토를 점령한 신라는 대부분의 지명을 원상회복하였다. 본래 백제의 옛 군현을 그대로 회복하여 다른 군현의 지명은 혼란이 없었다. 그런데 자심주 지역을 그대로 풍달군으로 회복하였다면 역사적 혼란이 없었을 터이나 신라는 당의 자심주를 폐지하면서 임존성으로 행정치소를 옮겼다. 이때 백제 시대의 서방성·풍달군 치소는 완전 폐쇄되었다. 이때부터 역사의 중심이 대흥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백제 풍달군, 서방성의 치소는 역사에서 아예 잊혀져 갔다.

따라서 '임존성'을 행정치소명으로 사용한 시기는 백제부흥운동기간 3년 4개월과 신라가 당군을 실질적으로 몰아낸 676년부터 경덕왕 16년(757년) 전국 지명 개편기까지의 81년간이다. 대략 85년 동안 사용한 임존성 치소명을 『삼국사기』는 '백제 임존성'으로 착각하여 백제사비시대의 조직인 방, 군, 성 체제에 맞지 않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 37군 명 중 유일하게 임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임존성이 아니라 풍달군이 들어가야 역사적 사실과 맞는 것이다.

또한 임존성 소책은 내상산(원수봉)이며 임존성 5194척(2427m)은 포백척(46,73cm)으로 측정된 수치다.



복원되기전의 남벽과 묘수비위 (출처: 『예산임존성』)



복원되기전의 임존성 남벽 (출처: 『예산임존성』)



복원된 임존성 남벽과 원수봉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를 보며...

박 세 진



간양리 2구 마을회관 바라본 덕방산(德方山) 전경 (해발 473m)

1) 마을의 개관

간양리(間良里: 간량골, 간량동)는 본래 예산군 금평면의 지역으로서 간량골 또는 간량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후리, 구정리, 박달리와 신창군 남상면의 사대리, 가정리, 대소정리, 효자동의 각일부를 병합하여 임성면(예산읍)에 편입된 후 현재 예산읍 간양리1, 2, 3구로 편제되어 있다.

2) 덕방산

간양리, 수철리, 신례원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 473m로 도고산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덕이 많이 깃든산이라 하여 덕방산 혹은 덕봉산이라 칭한다. 그러나 산신제 축문에 道高山, 德方山(도고산, 덕방산) 산신제로 되어 있는거로 보아선 덕방산이 맞는 거로 추측되어진다.

3) 산신제의 유래

산신제의 기원시기와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나 수백년전부터 구비전승 되어져 왔다는 데는 마을보통의 이구동성이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정확히 어떤 난리인지는 모르지만 난리통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고 마을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후에는 짙은 안개가 산을 감고 돌아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여 그 이후로 마을사람들을 생각하는 산의 영험함에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4) 제일

음력 10월 1일, 2일, 3일 중 마을 회의를 통해 제일을 정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제일이 정해지면 마을에 외



덕방산에서 바라본 가을들녘
(멀리 삼교천과 서해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덕방산신제 제당의 모습
(벽과 지붕은 흙으로 되어있으나 외벽만 슬레이트로 덧대어 개축하였다)



제당앞의 샘
(덕방산 유일한 샘으로 사계절 마르지 않으며 이샘물로 제기를 뒀고 제법을 하였다.)

부인의 출입이나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까지 금지 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상차남자는 제례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한다.

5) 제당

제당은 덕방산(473m) 정상 9부능선 쯤에 위치한 서향집이며 산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나 제당 주변은 마을 주민들이 미리 잡목과 수풀을 정리해 놓아 시야가 넓게 펼쳐져 서해바다까지 드넓게 펼쳐져 시야가 더할나위 없이 좋다. 제당은 나무 보와 기둥으로 되어진 흙집으로 지어졌으며 1960~70년대 수선을 가해 내벽은 흙집으로 외벽은 슬레이트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당내부는 예산읍의 지원으로 나무로 덧대어져 정결되어져 있었다. 제당 입구는 여담이 문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제례상과 좌측 상단에는 선반(시렁)이 올려져 있다. 제당의 앞에는 자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덕방산 줄기내 물나는 유일한 곳이며 사계절 마르지 않는다 한다.

5) 제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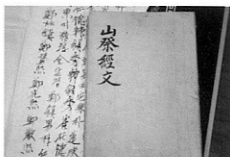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걷은 비용으로 수백년 내려져오는 제를 올리는 비용으로 충당 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이름 하나 하나 축문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잡은 돼지를 찌어지고 제법 지을 술단지과 미리내려 익혀놓은 제주와 제례음식등을 직접 찌어 지고 덕방산 제당까지 올라가서 제당앞 작은 샘에서 제기하고 찌어간 술단지에 물길어 밥짓는 거로 제례 지낼 준비를 하였다. 이 모든것이 여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간양리 남자주민들만이 산을 오르는데 숨고르기 위해 한두잔 마신 술기운에 서로 힘톤구워 가며 준비되어지고 제법이 뜸들어 제당으로 옮겨지면 제례준비는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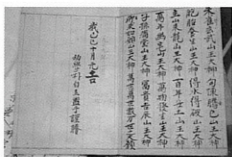
마을분들이 모여 제문을 쓰고 있다.



예산군 간양리 2구 마을화관



산제경문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덕방산 산신제 경문



1929년 정월에 필사했다는 내용의 글로 80년의 세월을 머금은 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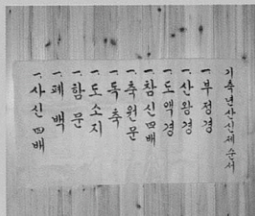
제례를 위해 덕방산을 오르는 마을분들
(등산객들로 인하여 길은 나져 있으나 인근 도고산에 비해 안내편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



제법 짓는 모습



산신제 제상 (산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산신제 순서



웅기단지에서 제주를 직접 따라 올리는 모습

6) 제의 과정

제밥 술단지째 올리며 제례음식이 차려지고 갓집아 올린 돼지머리를 상석으로 북어 한두리미, 고기, 미역, 멸치, 소금, 밤, 대추, 감을 놓고 역시 직접 만든 두부와 미역 떡이 올려진다. 제기는 웅기로 한번에도 산제 제기로 알수 있는 웅기 술단지과 웅기잔이 씌어져 옛것 그대로의 산생활의 모습이 남아져 있었다.

제례의 순서는 부정경이라는 축문의 독경을 시작으로 마을 분들 한사람 한사람의 160여분의 무운강녕함을 한사람도 빠짐 없이 읽느라 축문 읽는 시간은 두어시간 남짓 꽤오랜 시간 정성스레 읽혀진다.

7) 제의 정리

제가 끝나면 모여 음복을 하는데 술단지째 올렸던 제밥을 한가운데 놓고 찢짜름한 미역 부셔넣고 멸치가루 넣고 손으로 한움큼씩 비벼잡아 주먹밥으로 퇴주한 제주를 바가지에 부어 한숨씩 돌려가며 음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게 된다. 이후 제당을 정리하고 배낭 짊어지고 제주로 따뜻해진 몸이풀고 초겨울 찬바람 가르며 예전엔 관솔불을 대신하여 후레쉬로 길잡이 내려온다. 음력 초하루 달없는 어둔밤 험난한 산길이지만 여태 제례길에 발한번 헛디딘 사람이 없다하니 덕방산 산신제 마을사람들의 정성스러움을 아는지 마을 화관에 다시모여 낮에 잡은 돼지국물에 야식을 돌리며 정담을 오가는 것으로 덕방산 산신제의 하루는 끝난다.

8) 맺음말

언젠가 난리 피해 숨어들어온 마을사람들을 품어주고 안개피워 생명을 구하고 물내려 밥짓게 해주어 마을의 맥을 이어가게 해준 덕방산의 은덕에 겹쳐히 제사지내고 대자연의 고마움을 알고 면면히 내망을 의지삼아 살고 수백년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때되면 모여 정담속에 제를 준비하는 예산군 간양리 마을 주민들의 교감과 정감어린 모습이 바로 예산의 얼굴이며 계승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전통문화이지 않은가 싶다.



제사 올리는 모습



도소리하여 축원문을 태우는 모습



제밥을 손발로 음복하는 모습



제15대 예산문화원장 김시운 박사 취임 일시: 2008년 11월 11일



신년교례회 일시: 2009년 1월 6일
예산군내 각급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및 후원인사들이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다지는 신년교례회 매년 개최.

문화탐방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속 여행을..

예산문화원에서는 상, 하반기 년중 2회 전국 각지의 문화유적지 및 우수행사지를 방문하는 문화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문화답사 2009년 5월 8일 / 답사지: 안면도 국제 꽃 박물관, 서산미애사원불상



2차 문화답사 2009년 10월 16일 / 답사지: 인천 세계도시속전, 인천 차이나 타운

예술의 향기와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추사 김정희 선생 서세 153주기 추모제례
장소: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고택 추사묘앞



한국화 동아리 "예담회" 제2회 전시회
전시회 일정: 2009년 11월 27일~ 11월 30일



예산 사진 동아리 "예담" 제2회 전시회
전시회 일정: 2009년 12월 10일~12월 15일



예산문화원 밴드 동아리 "에블사운드"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사이 악기 배움터



천국의 숲 (충남예산) 김한주



바람소리 (충남예산) 김서길



황금나무 (충남예산) 박우범



예담의 구름 좋은 날 (충남 예산) 김한주



夢 (충남 예산 임한리 솔밭) 이항욱



기억속의 묻혀가는 곳 (충남 예산) 최영란



발레와 아이들의 신체발달

강 수 정

-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동대학원 석사학위
- 현 예선문화원 발레스쿨 교사



발레, 자세교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

안녕하십니까? 발레스쿨을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발레스쿨에서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을 통한 표현력을 기르고 동시에 창의력과 음악적 감각을 고양시키고, 균형 있는 신체 발달을 통해 바른 자세와 예절 바른 몸가짐을 갖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무용을 배움으로서 아이들의 자신감과 표현력을 살려줌으로 더욱 활동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참된 예술교육과 예술적 감성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발레가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때 발레를 하는 다섯 가지 이유〉

1. 아이들의 자세를 예쁘게 교정할 수 있다.

우선 발레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곧은 자세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아기는 아직 뼈가 굳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부분을 자극하다보면 교정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발레의 기본자세인 풀-업(pull-up)은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자세로 척추를 똑 바르게 형성시켜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동작이다. 그러므로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지만 5세 전후에 시작하면 유연하고 바른 몸매를 가질 수 있다.

2. 리듬감을 길러준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신체표현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학습이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보면 감수성과 리듬감, 박자 감각을 익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 밝은 성격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발레의 기본 동작인 스트레칭 포지션 점프 등을 아이들과 음악에 맞추어 즐기다보면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며 발레를 통해 배운 자신감은 모든 부분에까지 발전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건전하고 균형적이다.

발레 교육을 통해 단체일원으로서 협동 정신과 사회성 집중력을 배울 수 있으면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을 익히게 하며 신체의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음식습관 등 건강하고 균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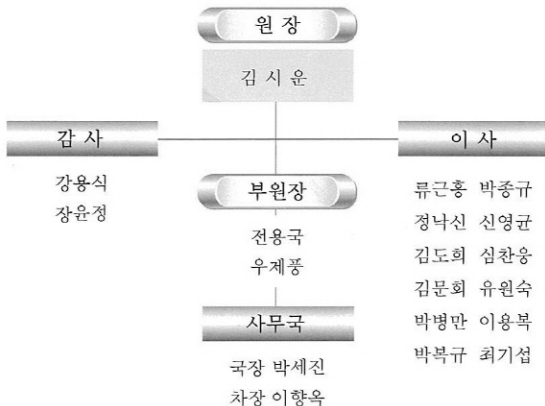
5.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발레의 기초가 되는 예술성과 음악성은 성장기 아이들의 바른 자세, 예절, 신체교정, 균형 감각과 사춘기 이후의 각종 전문운동의 좋은 기초가 되며, 예술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바른 자세, 예절, 신체교정, 균형 감각은 전문운동의 좋은 기초가 되므로 기초과정 정도는 모든 어린이들이 배우는 것이 좋다.

어린이 유아 발레는 신체적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고도의 테크닉 보다는 음악에 맞추어 간단한 기초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리듬감과 음악적 감각을 키울 수 있고 유아들의 자세를 예쁘게 교정할 수 있다.

예산문화원 조직도



예산문화원 문화교실 안내

	월	화	수	목	금
1층 공연장	에플사운드(실버음악단) P.M 2:00 강사: 김형배		예담사진 P.M 7:00 회장: 양수영 님	주부노래교실 P.M 2:00 강사: 윤세중 선생님 여섯줄안에서 P.M 9:00 조병석 회장	
2층 회의실			한학강좌 P.M 2:00 강사: 전용국 선생님		
2층 예결실		대한시조회(2,4주) A.M 10:00 회장: 정상호	연합시조 A.M 10:00(1,3주) 회장: 이복제		내포 시우회 A.M 10:00
3층 서예실	월요서예 A.M 10:00 강사: 오윤선 선생님	한국화 A.M 10:00 강사: 정훈자 선생님 화요서예 P.M 7:00 강사: 전용규 선생님	문인화 A.M 10:00 강사: 김영실 선생님		
3층 전시실	서물놀이 P.M 7:00	스포츠댄스 P.M 2:00 강사: 이영자 선생님 발레교실 P.M 5:00 강사: 강수정 선생님	서물놀이 P.M 7:00	어린이 발레 P.M 4:00 강수정(010-3135-3254)	

※ 2010년 신규강좌 예정 : 하모니카 연주반, 문인화반, 건강춤매만들기 어머니발레교실, 청소년을 위한 방송댄스, 풍수지리 (문화원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예산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신년교례회 및 전시회, 공연들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마음에 크나큰 숲을 이룹니다. 예산문화원은 이숲에 물과 거름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군민과 출향인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보태진다면 더욱 확대 될것입니다. 우리 예산문화원은 출향인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예산문화원 회비 및 기부금 납부자 명단

강 광 구	김 용 신	배 은 정	양 태 선	이 양 자	주 경 속
강 윤 식	김 원 옥	백 성 하	유 현 경	이 영 옥	차 순 자
강 희 주	김 윤 수	백 용 자	유 희 옥	이 완 주	최 기 남
곽 선 자	김 정 순	복 돈 규	윤 경 레	이 용 호	최 낙 현
김 기 연	김 진 아	복 용 규	윤 기 자	이 윤 기	최 영 주
김 난 순	김 창 영	서 신 미	윤 옥 진	이 정 옥	최 정 화
김 능 식	김 희 찬	서 용 필	이 기 선	임 동 환	최 화 자
김 동 준	류 연 희	서 용 필	이 기 인	임 은 실	
김 문 환	박 영 수	성 을 계	이 덕 자	임 응 빈	
김 미 숙	박 형	손 영 만	이 면 호	장 영 옥	
김 성 렬	박 은 순	송 애 순	이 상 구	정 진 우	
김 시 환	박 자 원	신 경 철	이 승 래	조 희 원	

※ 보내주신 회비 및 기부금은 기부금처리 되며 문화활동비로 값지게 쓰겠습니다.

보내실곳 : 국민은행 (예산문화원) 463901-04-113687



예산문화원
YESAN CULTURE CENTER

예산문화원보 | 비매물(통권 제42호)

- 발행인 : 김 시 운
- 발행처 :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 전화/팩스 : T. 041)333-2441, 335-2441 F. 041)334-4330
- 홈페이지 : <http://www.yesan.cul21.or.kr>
- 발행일 : 2009년 12월 31일
- 편집인 : 박 세 진 · 디자인/인쇄 : 포인트가드